

## 세대 차이를 말한다

柳 共 順

(淸州大 社會福祉學科)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들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조목조목 따져 볼 수는 없지만, 어쩌다 불일로 들르는 서울 거리에서 잠깐 방향감각을 잃고 당황하다 보면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다. 내가 태어나 이십여 년이 넘도록 정붙이고 살아온, 내 온갖 추억의 뿌리가 곳곳에 깊은 심지로 박혀있는 그 곳을 떠나 십여 년을 낯선 외국 땅에서, 그리고 또다른 십여 년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도시에서 살아오다보니, 이제 가끔 마주치는 서울은 마치 광막한 벌판에 솟아있는 거대하고 우람한 魔王의 도시처럼 메마르고 황량한 느낌으로 나를 당혹하게 만들곤 한다. 지금의 그 서울이 바로 내 童心에 아로새겨진 바로 그 곳일까? 곳곳에 질펀히 누워있던 눈밭과 덩굴며 뒹눌던 그 벌판 그 언덕들의 기억은 마치 거짓말처럼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는 게 어디 도시들뿐이라. 우리의 대학들도 그 量과 質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며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곳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의 모습 또한 많이도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와 同時代를 겪었던 대개의 作家들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어둡고 무겁고 답답하던 대학시절을 보내야 했다. 경제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난했으므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가정교사로 자신들의 젊음과 낭만의 시간들을 獻納해야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암울하던 독재의 칼날 아래 학교는 자주 문을 닫아 걸고 휴교상태에 있었다. 우리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끝없는 고독으로 피폐해가고 있었으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감이 오히려 고통으로 느껴져 젊음 그 자체가 차라리 두려울 때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많이 풍요로워졌다. 찢어질 듯한 가난, 어지러운 배고픔, 눈물젖은 빵, 타는 듯한 불벌더위, 살을 에이는 혹독한 추위와 같은 표현들은 이제 한낱 童話的 단어들로 더 이상 사람들에게 實感을 전할 수 없는 死文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교정은 이제 개성있는 옷차림, 쾌활한 웃음, 자신만만한 표정의 젊은이들로 가득 차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도전적이고, 그들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태도는 구김이 없으며 사고는 직선적이고 표현에는 자기주장이 강하다. 그들은 결코 오래 기다리지 않으려 하고 귀찮은 일을 뿌리칠 줄 알며 자기의 損益에 대한 계산이 재빠르고 사랑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일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려 한다. 누구는 그들을 가리

켜 버르장머리 없는 신세대라고 혹독하게 質渡하고 또 어느 누구는 권위의 칼날 아래 그들을 굴복 시키고자 분주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과의 교류자체를 거부한 채 서둘러 스스로의 가슴에 높은 장벽의 울타리를 둘러치기도 한다.

사실 세대차이의 허무한 實像을 나도 가끔씩 확인해보는 기회가 있기는 하다. 여학생들의 아슬아슬하게 치켜 올라간 치마에 눈길 둘 곳을 몰라 가끔 강의중에조차 혼란을 느낀다는 동료교수의 정직한 하소연에 함께 웃음을 터트리면서, 번쩍이는 중형차를 몰고 교내로 진입하는 학생들의 경적소리에 놀라 길을 비켜서야 할 때, 나란히 서서 걸을 때면 자연스럽게 팔짱을 걸어오는 여학생들의 스스로 없던 친밀감의 표현방식에서, 자신들의 과거는 완전히 망각한 채 철 없는 후배들을 담담해하며 세대차이를 논하는 선배학생들의 불맨 불맨의 환속 속에서, 특히 같은 학년에 재학생인 예비역과 현역학생들의 눈에 띄게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상의 차이에서,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미소로 觀望할 수 있는 느긋한 나의 무관심에서 나는 분명한 세대차이의 實體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進歩하지 않고 머무는 것은 오히려 退化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열 걸음 앞서 가는데 나는 세 걸음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명백한 退步로 이름지어도 좋을 것이다. 변화란 옛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쌓는 진보의 작업이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인류의 발전도, 세역사의 창조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새것을 짓는 일에 열중하는 세대가 그것을 미처 짓기도 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허물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老婆心과 또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날지도 모르는 시대적 乖離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과 공포를 세대차이라는 명목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대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라나오는 신세대의 思考와 태도에 대한 기성세대의 어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부수지 말고 단숨에 낫선 理想郷을 건설해 내려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옛것이 지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그 위에 덧씌워질 새로운 형상과의 조화관계를 한번쯤은 되짚어 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더 이상 변화와 진보에 대해 막연히 懷疑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사회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이고 그 맨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는 신세대들이다. 미래는 그들의 것이고, 과거를 부수고 새로운 시대의 理想을 구현해 나가는 창조작업은 그들에게 맡겨진 무거운 짐이다. 그들은 스스로 그 짐의 무게를 認知하고 그들의 손으로 이룩되어질 불투명한 未來像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일단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 고통과 불안은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겪어야 하는 자기성장의 한 과정으로서 우리는 다만 조금 먼저 그 같은 길을 헤쳐나올 수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함께 그들을 도와야 한다. 새로운 날들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야하는 창조작업은 그들만의 임무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필요한 誠行錯誤에 시달리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달려주고 또한 그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너무 함부로 자기것을 버리지 않도록 사려깊게 충고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태어나 좀 더 많은 것을 먼저 알아버린 선배의 입장에서, 내게 맡겨진 새 세대의 知性을 갈고 닦아 좀 더 빛나는 보석으로 細工해내야 하는 匠人의 사회적 책임으로, 그리고 우리손으로 이어온 前代의 역사적 사명을 올바로 後代에 傳承하고자 하는 先知者的 소명감으로 우리는 그들의 빛나는 젊음을 함께 고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대간의 갈등 또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대립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일이다. 한 세대는 다른 세대와 서로가 누구에게도 적이 될 수는 없다. 그들은 同時代를 共有하고 있는, 서로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만이 자신의 위치를 定立할 수 있는 상호 필연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화와 협력이지 결코 대립이나 갈등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손을 잡느냐의 문제이지 더 이상의 무엇도 없다고 본다. 만일 누군가가 세상을 좀 더 오래 살았고 더 먼저 배워 앞서 인생을 깨우친 자라 하여 먼저 손을 내밀기가 거북하다면 나는 그것을 불필요한 권위주의라 본다. 나는 권위라는 명목 아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그것에 사사건건 시비를 가려야 하는 일을 증오한다.

사실상 변화해 가는 세상에서 맹랑한 젊은이들이 엮어내는 세대차이의 문제는 오늘 하루만의 새로운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한발 앞선 채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가고 있었으며 前世代는 언제나 가슴 조이는 불안과 조바심으로 그들의 疾走가 盲目이 되지 않도록 그들 앞에 理性的 햇불을 높이 밝혀주곤 했던 것이다. 그들은 어리숙해 보였으나 결코 어리석지 않았으며 때로는 비겁해 보였으나 또한 절대로 비열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잊지 않은 채 말없이 그날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나오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앞서 나아간다 해서 그들만이 역사의 주인공은 결코 아니다. 역사란 그 전세대의 사람과 세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엮어내는 한줄기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어떤 젊은이가 있어 그들 特有的 순수한 열정과 드높은 理性을 소유하고도 정당한 판단력 행사의 기회도 없이 기성세대를 한갓 '沒理解의 세대'로 치부해 버린다면 나는 그들을 선입견과 편견에 얽매인 치졸한 변형주의자라고 칭하고 싶다.

세대차이란 실로 극복할 수 없는 未知의 산은 아니다. 신세대와 기성세대는 모두가 同質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를 共有하며 살고있는 同類의 인간들이다. 사실 그들은 모두가 서로 아주 닮은꼴이다. 오늘의 신세대가 내일의 기성세대이고 그다음 다시 태어나는 세대에 의해 그들은 전세대라 불리워질 것이다. 그들은 둘로 가를 수 없는 존재적 일체로서 그들의 가슴은 선조로부터 물려내려온 맥맥한 핏줄기의 붉은 끈으로 한데 단단히 엮혀져 있다. 그것은 누구의 손으로 끊을 수도 또는 새로 맺을 수도 없는 신비의 끈이다. 그것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오직 同類愛的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뜨거운 본능적 느낌일 뿐이다. 따라서 세대간에는 결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앞과 뒤라는 위치상의 문제일 뿐, 그 어떤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자 한다. 흐르는 물줄기의 도도한 절주를 막을 수 없듯이 변화란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인류발전의 과제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현세대에 부과된, 누구의 손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숙명적 과제라면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인들 어떠랴. 세세대가 이루어는 미래의 理想郷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간다면 세대차이란 단어는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되어 극복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이 아닌가. ■